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6.3. ~ 6.9.)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신 7 - 14	시 90 - 101
	개인	사 35 - 41	계 5 - 11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신학 - 다섯 오직(5) - 오직 하나님께 영광(4)		
	<p>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p>		



요한계시록 5장 / 죽임 당하신 어린 양**개요**

1-7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8-14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1절). 거기엔 하나님의 비밀(계획)이 담겨 있습니다(계 10:7).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 요한은 크게 울니다(2,3절). 하지만 그 일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4-7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이를 권위와 자격을 가지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구원하신 분으로,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들이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하며, 또한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기에 합당한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8-14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속죄를 위한 희생양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그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리십니다. 또한 온 세상 주권을 가진 왕으로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을 통해 세상을 다스립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6월 4일(화)

신8

시91

사36

계6

요한계시록 6장 / 여섯 인

개요

1-11 다섯 인: 성도들의 고난

12-17 여섯째 인: 하나님의 심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인을 하나씩 떼십니다(1절).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순서는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종말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어린 양이 각 인을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있을 모든 시대 교회에 미치는 핍박과 시련을 상징하는 환상들이 나타납니다(1-8절).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때문입니다(9-11절).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섯 째 인을 떼실 때 땅에 대한 심판이 실행됩니다(12-17절).

성도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연결됩니다. 이 땅의 죄를 고발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이에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9-11절).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핍박을 아시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고 살라는 격려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의 날들을 갹아주시옵소서.

6월 5일(수)

신9	시92,93	사37	계7
----	--------	-----	----

요한계시록 7장 / 하나님이 인 친 사람들

개요

- 1-4 하나님이 인 친 사람들
- 5-17 소망 가운데 찬양하는 성도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으로 십사만 사천 성도들을 인칩니다(1-4절). 십사만 사천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로써(12 x 12 x 1,000 = 144,000)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5-9절). 이 모든 성도들과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9-12절). 모든 성도는 큰 환난을 거친 자들로서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백성이며(13,14절),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시 고난 당하지 않고 거기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15-17절).

이 환상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찬송과 위로를 얻을 성도들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였고, 기꺼이 순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래의 소망은 오늘을 담대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소망이 주는 기쁨과 평안의 확신을 우리 마음 깊숙이 채워주시어, 오늘을 견디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6월 6일(목)

신10

시94

사38

계8

요한계시록 8장 / 일곱 나팔

개요

1-5 일곱째 인, 일곱 나팔, 성도들의 기도

6-13 네 나팔

마지막으로 일곱째 인이 떨어집니다(1절). 그리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2절). 또 다른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줍니다(3-5절). 일곱 나팔이 준비되고(6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여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니다(7-13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환상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기 전까지의 일을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환난 당할 때에 드린 기도들을 모두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재앙을 연상시키는 모양으로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7-13절).

환난 당하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강력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님의 뜻을 간직하고 이루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6월 7일(금)

신11

시95,96

사39

계9

요한계시록 9장 /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

개요

1-11 다섯째 나팔(첫 번째 화)

12-21 여섯째 나팔(두 번째 화)

남은 세 나팔은 세 가지 화를 보여줍니다(계 8:13). 다섯째 나팔을 불자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메뚜기)이 나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합니다(1-11절). 여섯째 나팔을 불자 두 번째 화가 이르는데,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놓여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입니다(12-21절). 유브라데는 바벨론에 걸쳐 있는 큰 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최종적인 심판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화는 성도들이 아닌, 원수들을 대상으로 한 화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악한 세력에 의해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장차 있을 최종 심판의 예고편입니다. 모든 원수들과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악한 세력들에게 임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6월 8일(토)

신12

시97,98

사40

계10

요한계시록 10장 / 작은 두루마리

개요

- 1-4 작은 두루마리를 든 천사
- 5-11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요한

작은 두루마리를 든 천사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1-4절). 요한은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데, 입에는 꿀 같이 달지만 배에는 쓴다(5-10절). 이것은 성도가 복음으로 인한 구원이 좋은 것이지만, 복음으로 인해 고난이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가집니다(11절).

요한이 받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입니다. 그 안에는 단 맛과 쓴 맛이 함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있으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면서 당할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복음은 좋으면서도 고난이 따르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다가도, 증인으로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 두 모습 모두 성도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잠시 당할 고난을 견디고 진리를 담대히 전하고 그 안에 살아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6월 9일(주일)

신13,14

시99-101

사41

계11

요한계시록 11장 / 두 증인

개요

- 1-4 참된 교회
- 5-13 교회의 핍박과 권세
- 14-17 일곱째 나팔: 셋째 화

주님이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게 하십니다(1,2절). 성전 안에는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은 마흔두달 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2절). 그럼에도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성도들은 이 기간, 천이백육십일(1,260일=42달) 동안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것입니다(3절). 두 증인은 신실한 증거를 상징합니다(신 19:15). 또한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비유되는데, 교회가 핍박을 당하나 모세와 엘리야처럼 영적 권세를 가지고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4-13절). 그 기간은 사흘 반(3일반)인데, 3년 반(=42달=1,260일)이라는 시간을 엄청나게 짧은 시간으로 서술하면서, 잠시 지나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셋째 화가 이릅니다(14절).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선포됩니다(15-17절).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사탄의 나라가 이길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런 현상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마지막 승리의 확실함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결말을 보이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 모든 날들은 오래지 않아 끝을 맞이할 것이며, 주님의 왕권이 나타나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정리하실 것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요한과 당시 교회에게 주신 위로와 힘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의 확실함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복음과 삶 - 직업(3)

Part 1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1. 도시 -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Part 2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2. 마음 - 세 가지 삶의 방식
3. 우상숭배 - 가장 근본적인 죄

Part 3 복음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4. 공동체 - 변화의 장
5. 전도 - 대안적 도시

Part 4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6. 직업 - 동산을 경작하기
7. 정의 - 타자를 위한 사람들

Part 5 복음은 우리의 영원을 바꾼다

8. 영원 - 앞으로 다가올 세상

안식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쉬는 것이 단지 일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식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신앙고백서와 청교도들의 글을 보면 복잡한 설명과 규칙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과 규칙은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1. 마태복음 11장 28-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또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나요?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11:28-30)

2.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읽고 이야기해봅시다.

117문. 안식일 또는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우리는 안식일 또는 주일을, (1) 온 종일을 거룩하게 쉬되, 어느 때나 죄가 되는 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는 정당한 세상의 일들과 오락까지 쉬고, (2)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공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음으로써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하며, 세상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함으로 배치하고 시기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일에 해야 할 의무들을 더 자유롭게 적절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답.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오직 예수님 안에 근거한 정체성, 의미, 중요성을 가질 때에만 우리 영혼은 깊은 쉼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우리 일 속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야 한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그리스도를 통해 끝났으므로 우리는 마음 편히 안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고단함을 경험하게 된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한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것처럼, 일도 우리 모든 것을 원한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일은 우상화된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일을 정기적으로 멈추고 예배하고, 쉬고,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휴식은 일을 다시 하기 위해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행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는 순종이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룩한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면, 누구든지 그 무언가의 노예이다. 자신의 마음이나 물질주의에 물든 현대 문화, 노동력을 착취하는 조직, 또는 그 모든 것들에 휘둘릴 것이다. 안식은 믿음의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며,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며, 일과 안식의 질서를 주신 분이신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3.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식일을 기억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읽고 답해보세요.

121문. 제4계명을 왜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합니까?

답. 제4계명이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안식일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큰 혜택 때문입니다. (1) 즉 우리는 기억함으로써 안식일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로써 다른 모든 계명을 더 잘 지키게 되며, (2) 우리 신앙의 간략한 요약이 담긴 창조와 구속이라는 두 가지 큰 혜택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습니다. (3) 또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안식일을 너무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이는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본성의 빛이 약하여 안식일을 기억하기 어렵고, 안식일이 아닌 날에 할 수도 있고 해도 되는 일들을 안식일에도 하려는 우리의 본성의 자유를 이 계명이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4) 또한 안식일은 칠일 중 단 한 번 오는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세상의 많은 일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자주 안식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여 안식일을 준비하거나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5) 그리고 사탄이 그의 도구들을 가지고 힘써 일하여 안식일의 영광을 없애고, 심지어는 안식일에 대한 기억조차도 지워 우리를 모든 불신앙과 불경건에 빠뜨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4. 주님 안에서 지켜고 누려야 할 안식을 방해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주님을 잊고 살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